



승오스님의

경전읽기

안반수의경 ①

선수행에 관한 많은 지침서들이 있으나, 이중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처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전이나 논설(論說)은 많지 않다. 이 경전의 이름은 모두 갖추어서 부르면 <불설대안반수의경>이고, 줄여서 <대안반수의경> <안반수의경> <대안반경> <안반경> <수의경> 등으로 불린다. 상·하 두 권으로 이루어졌다. 이 경전은 후한(後漢) 시대의 안세고(安世高) 스님에 의하여 최초로 한역되어 인도 밖으로 소개되었는데, 수많은 불제자들의 저술에 인용되고 있다. 경의 앞에 적은 강(講)의 승회(僧會)의 서문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수행법으로 받아들여졌는가를 짐작케 하고 있다.

수식관은 옛날부터 불교 수행자의 전용물로만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 또한 올바르게 전수되지 않았다. 문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선가(禪家)의 가풍(家風)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구나 소승의 수행법이라고 하여 낮추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호흡법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되어야 할 소중한 가르침인 것이다. 이 수행법을 익힌다면 정신의 피폐(疲弊)와 건강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상권에는 호흡의 수련에 의하여 여섯 가지 진전의 단계를 이 야기하고 있다. 들숨과 날숨의 수를 헤아리는 수(數), 호흡에 의식을 같이 하여 하나가 되는 상수(相隨), 더 나아가서 마음이 호흡하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깨달음 얻는 호흡 수행법

산란한 마음쉬고 건강 찾을 수 있어

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경전이다. 이 경의 내용은 호흡에 정신을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신의 안정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수행법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방법을 원어로는 '아나빠나사띠(anapana-sati)'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안반수의(安般守意)로 적은 것이다. '안반수'의 수행방법을 살펴보면,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나(ana)'는 들숨이고 '아빠나(apanā)'는 날숨이며 '사띠(sati)'는 의식의 집중이다. 이러한 안반(安般)을 번역하면 수식관(數息觀, 소승선의 수행의 다섯 가지 관법) 오정심관(五停心觀)인 부정관(不淨觀)·자비관(慈悲觀)·인연관(因緣觀)·계분별관(界分別觀)·수식관(數息觀)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좌선을 하면서 호흡의 들이쉬고(入息) 내쉬는(出息) 수를 세는 것으로서 산란한 마음을 쉬고 뜻을 지키는 방법을 말한다.

고요히 안정되는 지(止), 모든 사물을 관찰함에도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된 상태인 관(觀), 다시 고요한 상태인 자기의 주체로 돌아오는 환(還), 밖의 사물이나 내면의 그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청정한 세계인 정(淨)이 그것이다. 하권에는 이와 같은 여섯 가지의 단계를 내용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수(數)를 헤아리는 수식의 단계에서는 네 가지 마음의 힘을 얻게 된다는(四意止) 것과, 상수(相隨)의 단계에서는 또 다른 네 가지 마음의 힘으로써 악을 없애게 된다는(四意斷) 것과, 지(止)의 단계에서는 네 가지 통력을 얻게 된다는(四神通) 것과, 관(觀)의 단계에서는 다섯 가지의 정신력(五力)을 얻게 되고, 환(還)의 단계에서는 일곱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고(七覺慧), 정(淨)의 단계에서는 여덟 가지 올바른 길(八正道)을 얻게 된다는 것과, 이 호흡법의 수련 공덕에 대하여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다.

■해인사 승가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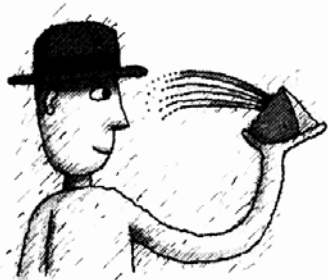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이 세상을 분할할 수 있을까

불교와 과학 <16>

디지털과 색의 세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색깔은 모두 몇 가지일까? 태양에서 쏟아지는 빛깔을 스펙트럼으로 볼 때 비로소 색깔을 감각할 수 있다. 우리는 그런 빛의 색깔을 빨·주·노·초·파·남 보기가 색깔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빛깔의 색깔은 7가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원래 빛깔은 연속적이며 따라서 색깔도 무한정하다. 그러나 인간은 연속적인 무한성보다 색깔의 이름을 다 붙일 수 없으며, 결국 인간이 붙일 수 있는 색깔의 이름을 만들어서 연속의 빛깔을 불연속의 색깔 이름으로 제한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색깔의 이름과 이름 사이에 끼여 있는 색깔은 앞 뒤 이름의 색깔로 그 이름을 대신한다.

이런 경우 이름과 이름 사이에 있는 색깔은 어떤 사람에게도 귀찮은 존재가 되어 버린다. 예를 들어 56가지 크레파스를 만드는 크레파스 공장 주인에게는 56가지 사이에 있는 무수한 색깔들의 존재는 일종의 색깔의 노이즈(noise)일뿐이다. 마찬가지로 전화기의 소리도 그렇다.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국의 구형 송출방식은 전기신호로 환원된 사람의 소리가 연속적이어서 송출하는 전기에너지와 일대일 대응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전화 통화할 때 잡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방식의 송출은 연속적인 소리의 전기신호를 불연속적인 단위로 끊어주어 한 단위 한 단위로 송출하게 되어 이를 받는 수신기는 단위 전기신호를 다시 소리로 바꿔 주면 되기 때문에 잡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디지털 전환은 전기신호 0

세어서 물을 옮기면 물의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디지털 방식의 물 전달 효과이다. 이러한 전달 과정에서 물의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이쪽 항아리 들고 물통 없이 다른 항아리로 직접 부으려고 한다면 옆으로 새고 흘리는 물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물 전달의 노이즈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아날로그 방식의 물 전달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물통으로 세어서 옮겨진 물은 전달의 효과는 글지 몰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량화된 물통 수에 맞춰진 강요된 물의 양을 상대방이 전달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아리 채 들어서 옮겨지는 물은 비록 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양만큼 부어서 물통 수와 다음 물통 수 사이의 적절한 양에서 옮기기를 그칠 수 있다. 결과는 디지털 방식의 물 옮기기는 정확한 양이 문제인 반면 상대방 사람의 의도와

이곳날 수 있으며, 아날로그 방식의 물 옮기기는 물을 흘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양을 줄 수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이러한 수차적 비유는 결국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차이에 대한 은유적 비유이기도 하다. 결국 디지털 기술의 핵심은 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나눌 수 있으며 그것을 다시 유용성 있게 조립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모두가 디지털처럼 전부 분할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 말은 이 세계가 모두 색(色)의 존재로서 설명가능한가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기도 하다. 아무래도 다음 호로 넘겨 퍼들어야 할 것 같다.

■최종덕/상지대 교수 (jchoi@chiak.sangji.ac.kr)

빛의 색깔 무한하나 가지로 명명

디지털 방식 정밀하지만 가상세계

소리가 아니라 편집된 소리를 듣고 있는 셈이며, 디지털로 구획되지 않았던 원래의 소리 대신 가상적인 소리를 듣는 상황과 비슷하다. 결국 전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아주 미세하게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상세계를 맛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 작은 미세한 차이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가상세계의 미래를 그 안에 품고 있다. 디지털을 통한 가상성과 현실성 사이의 차이는 디지털 특성과 아날로그 특성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드러날 수 있다. 디지털 정보는 불연속적 단위로 새로이 조합된 정보이다. 반면에 아날로그 정보는 연속적인 어떤 하나이다.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하는 정보의 전달과정을 보자. 이 쪽 항아리의 물을 다른 항아리로 옮기려고 할 때, 물통을 갖고 한 통, 두 통, 세 통으로

절 찾아 새해 소망 발원

지구촌 불교 / 베트남 설

국민 대다수가 불제자인 베트남에서 설(테트, Tet)은 '불교 기념일'이나 다름없다. 베트남인들은 설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부터 절을 찾아 한 해의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새해의 희망을 기원한다. 하노이에서 서쪽으로 3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절인 형파고(다사(寺)를 비롯해 대도시 인근의 절들은 이 기간 방문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

공휴일이 많지 않은 베트남이지만 설 연휴만은 보통 일 주일을 쉰다. 일부 상인들은 아예 한 달을 쉬면서 새해를 준비하기도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보너스와 선물을 준비하고 평소 신세를 진 사람과 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선물을 보낸다.

이 기간 사찰에는 불단에 올리는 갖가지 공양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거리에는 선물을 나르는 차량들로 큰 혼잡이 빚어진다. 베트남의 설 선물이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이 주로 음식이나 술 등을 주고받는데 비해 나무와 정표를 교환하는 것이다.

설 수습일 전부터 시내에는 '꺼이갓'이라 불리는 작은 나무와 화다오라 불리는 꽃나무가 작은 차량과 오토바이에 실려 각 사무실과 가정을 찾고 있다. '꺼이갓'은 작은 굴나무의 일종으로 크리 스마스트리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가진 나무인데 '땡'이라 불리는 작은 꽃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 굴처럼 많은 복이 내려지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일주일간 연휴... 불단 공양물 '산더미'

보트피플도 귀국... 꽃나무 선물 인기

우리의 살구나무처럼 작은 붉은 꽃이 붙어있는 화다오라는 액을 붙여놓는 나무로 '꺼이갓' 못지 않게 사무실과 가정을 장식하고 있다.

독특한 것은 설 전날 저녁 많은 음식을 준비해 옴파오라 불리는 부엌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이다. 부엌신 옴파오는 가정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신이다. 이 신은 한 해 그 집안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작성해 옥황상제에게 제출하며 이 보고서에 따라 새해의 운명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신이라고 베트남인들은 믿고 있다. 설 전에 제사를 올리는 것은 옴파오가 하늘나라에 가서 보고하고 새해 전에 돌아오려면 일주일간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 전에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설 전날 저녁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모두 모여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한다. 늦은 밤에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신에게 가족 모두가 제사를 올리며 새해 첫날 아침에는 부모와 친척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세배돈을 받는다.

우리는 어른이 어린이들에게만 세배돈을 주지만 베트남은 아는 사람들끼리 상하 관계없이 세배돈을 주고받기도 한다. 이어 둘째 날부터는 친구나 은사, 상사 등 평소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세배를 하고 음식을 나눠먹는다. 이들도 우리와 같이 땡총이라는 참쌀로 빚은 떡을 만들어 먹고 새 옷을 입으며 제기차기와 레슬링, 율동 등 놀이를 즐긴다. 다만 중국처럼 즐기면 폭죽놀이는 피해가 심해 수년 전부터 금지됐다.

베트남 전통 중에 율남은 설 휴전을 믿고 휴가를 즐기다가 월명군의 습격을 받았는데 율남 사람들은 모두 폭죽놀이인 줄 알고 아무런 대비를 않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폭죽놀이는 그 도가 지나쳐 시내 전체가 매연으로 가득했으며 한해 폭죽값만 수천만 달러가 들었다고 한다. 아무튼 베트남인들에게 설은 불심과 존경, 희망이 모두 어우러진 최고의 축제임에 틀림없다.

오종욱 기자(gobooou@buddhapa.com)

2000년도 『현대불교신문 합본 6집』 發刊!

현대불교신문에는 큰스님 법문 ·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 생활의 지혜 · 불교문화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내 용 : 2000년도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252호~300호)
- 판 형 : 신문대판 원형 (40cm×55cm)
- 방 법 : 전화 신청 / 입금 확인 후 택배 발송
- 가 격 : 60,000원 (발송비 : 지역별 3천원~7천원)
- 입금구좌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 민 023-25-0007-617, 농 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1255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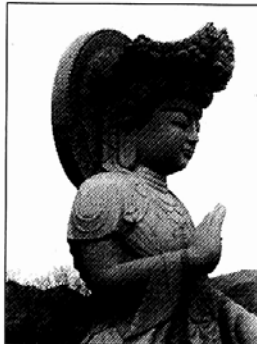
※ 2001년 2월 10일까지 신청서 발송료 면제

■ 문 의 : (02)737-0090 直 (02)737-8881 代 / 팩스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일심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지난 30년간 오직 석재조각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국대 불교문화예술대학원에서 문화재를 전공하며 체계적인 이론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교조각을 통해 불법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인연법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